

기름에 안 튀긴 '비유탕면' 성장세

작년 32% 판매 증가... 홈플러스 110여개 매장 '비유탕면 특설 매대' 설치 계획

기름에 튀기지 않은 '비유탕면'이 지난해 32%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라면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라면은 이미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 국내 라면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지난 5년간 등락은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500원대 프리미엄 중화풍 라면의 인기가 높고 웰빙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라면 제조사들도 차별화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기름에 튀긴 '유탕면' 위주였던 라면시장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비유탕면'으로 된 신제품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유탕면 판매 규모는 2015년 629억 원을 기록한 이래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약 8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다.

라면 성수기인 12월 매출까지 반영하면 지난해 비유탕면의 시장 규모는 900억 원을 무난히 돌파하고 1000억 원 규모에도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국내 비유탕면 시장은 풀무원이 이끄고 있다. 풀무원식품은 2011년 기름

에 튀기지 않은 비유탕면 '자연은 맛있다'를 론칭했다. '자연은 맛있다 꽃계짬뽕'이 출시 두 달만에 200만개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다. 다만 그동안 자극적인 맛에 익숙했던 라면 마니아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었다는 게 회사 자체 분석이다.

이어 2016년 출시한 육개장칼국수가 출시 6개월만에 2000만개를 판매하고 국내 봉지라면 매출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풀무원은 지난해 브랜드명 '자연은 맛있다'에서 '생면식감'으로 바꾸면서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라면업계 최초로 일본식 라면인 '생면식감 돈코츠라면'을 출시했다.

풀무원 외에 다른 라면 제조사들도 비유탕면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심은 2016년 말 '열린장칼국수'를 삼양식품은 2017년 '파들뽕육개장'을 선보였다. 모두

비유탕면이다.

유통업계도 이 같은 트렌드에 호응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13일 전국 홈플러스 110여개 매장에 '비유탕면 특설 매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라면시장은 약 6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비유탕면 비중은 2011년 5%에 불과했지만 최근 25%까지 성장했다. 국내 라면시장의 경우 아직 비유탕면의 비율이 낮지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풀무원식품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라면은 빨간국물, 하얀국물 등 스프 개발이 관건이었지만 2015년 굵은 면발의 중화풍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면의 식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유탕면 일색인 국내 라면시장에서 비유탕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라면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가스공사, 역대 일일 최대 공급량 20만톤 돌파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이번 주 최강 한파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 급증으로 역대 일일 최대 공급량 20만 599톤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2일 기록한 일일 최대 공급량 19만9464톤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전국 4개 LNG 생산기지(평택·인천·통영·삼척) 송출 능력 및 공급관리소 설비를 점검하고, 비상 공급설비를 가동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 10일 '천연가스 계통운영 위험대응체계 1단계' 유역 경보를 발령, 대구 분사 중앙통제

실에 계통상행반을 운영 중이다.

또 최대 수요 대비 전국 생산·공급 설비 점검을 비롯한 산업단지 밀집 지역인 부산·영남권 주배관 압력 보강을 위해 운영 중인 승압설비를 적기 가동해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영진 주관으로 동절기 한파 대비 전 사업소 긴급 현장점검을 펼쳤다. 오는 3월까지 '안전관리 강화대책 기간'을 운영, 안전점검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뉴시스

작년 복권 판매 4조 돌파 '사상 최대'

지난해 팔린 복권 금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복권판매 실적(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수입은 4조1561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금액이다.

복권 판매액은 2010년 2조5255억원에서 2011년 3조8055억원으로 3조원을 돌파한 뒤 2012년 3조1854억원, 2013년 3조2340억원, 2014년 3조2827억원, 2015년 3조5551억원, 2016년 3조8855억원으로 매년 커졌다.

지난해 온라인복권(로또)이 3조7974억원이어나 팔렸다. 전체 복권판매액

의 91.4%에 달한다.

인쇄복권(즉석식) 판매액은 2053억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추첨식)은 1022억원, 전자복권은 512억원이었다.

복권위는 5년 내 복권 판매액이 5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탁운용 수수료율을 1.4070%(733억원)로 정한 배경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예정수수료율은 매출 규모 증가에 따라 체감하도록 설계됐다"며 "(5년 내) 추정매출액은 5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 복권위를 열어 2017회계연도 복권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뉴시스

'국가대표 단복 리미티드 에디션'

노스페이스, 평창동계올림픽 G-30일 맞아 출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스포츠의류 부문 공식파트너(Tier 1)인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환)의 노스페이스는 평창동계올림픽 G-30일을 맞아 '국가대표 단복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의류 브랜드 라이선스(License)이기도 한 노스페이스는 팀코리아 선수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시상대 위 영광의 순간에 착용할 '시상복'과 '트레이닝복' 등 3종의 제품을 팀코리아에게 제공할 수량을 포함해 각각 2018장 한정 출시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시상복으로 활용될 '팀코리아 브리모션 재킷'은 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브리모션 인공 충전재'를 적용해 보온성 및 경량성을 강화했다. 수분에 강해 물세탁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가 간편하다. 태극기 색상인 청색, 홍색 및 백색이 기본이다. 몸판 전체에 태극의 곡선을 살려 우리나라 고유의 감성을 담았다.



팔 소매에 '팀코리아 캘리그래피 적용'과 사진 배치를 통해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등에서 착용할 트레이닝복 '팀코리아 팀드 팬츠'와 '팀코리아 팀드 팬츠'는 흡습·속건 기능은 물론 뛰어난 신축성과 회복력을 가진 저지 소재를 적용했다. 상의는 팔 소매에 '팀코리아'의 캘리그래피를 적용하고, 가슴에는 태극기 외판으로 포인트를 줬다. /뉴시스

민주당, 법무부발 가상화폐 논란에 "당정협의 할 것"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장은 12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준비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과 만나 '가상화폐 관련 정책위 계획'을 질문 받고 "지난 연말에 비공개 회의를 했다. 법무부가 중심이 왜 의제를 관리하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는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논의를 본

격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거리자 청와대는 운영한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안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다음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올해는 5차례가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및 위험성 관리계획(RMP) 등이다.

신규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돼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카드사들, 가상화폐 결제 중단작업 추진

해외서 가상화폐 구매 행위 사전 차단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막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 8곳은 최근 논의를 거쳐 이같이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국내 투자자가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연세금융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발맞춰 카드사들도 나선 것"이라며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곳도 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카드사가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카드결제 중단은 해외 거래소에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중단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협회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뒤늦게 입장을 내고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관산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